

강진군, 논콩 재배 활성화로 농업 경쟁력 강화

재배 면적 1년만에 203% 증가
벼 재배 비해 노동력 절감 장점
직불제 등 농가당 최대 400만원
전문가 초빙교육·현장 기술지도

강진군이 벼 대신 논콩 재배를 활성화해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고부가가치 농업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 강진군의 논콩 재배 면적은 전년 대비 203% 증가해 358ha에 이르렀으며 내년에는 700ha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다양한 지원책으로 농가 육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27일 강진군에 따르면 논콩 재배 확대를 위해 농기계 지원, 재해보험 확대, 직불제 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논콩 재배는 벼에 비해 육묘와 이앙 과정이 없어 노동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군은 논콩 재배를 위한 농기계 지원 사업을 추진해 3억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농가에 파종기 등 필요한 장비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재해보험료의 95%를 지원하며 습해에 취약한 논콩의 재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있다.

논콩은 정부의 전략작물직불제 대상 작물로 쌀 생산 과잉을 방지하고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대체 작물로 2023년 적극 장려됐다.

강진군은 논콩 재배 농가에 대해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ha당 200만~350만원을 지원 중이며 군 자체적으로 논콩 재배 육성 지원사업을 통해 추가로 ha당 50만~150만원을 지급한다.

농가는 최대 4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논콩 재배를 통한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콩 농작물 재해보험을 통해 농가의 부담을 줄였다. 군은 콩 농작물 재해보험의 자부담금을 50% 추가 지원해 농가가 실질적으로 보험료의 95%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습해에 취약한 논콩 농가의 소득 보장을 위해 마련된 조치다.

강진군은 벼를 대체할 소득 작물로서



강진원 강진군수가 논콩 재배 현장을 찾아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논콩 재배를 확대하기 위해 전문가 초빙 교육, 현장 기술 지도, 가공·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논콩 재배 면적을 700ha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논콩을 강진군의 대표 소득 작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강진원 군수는 “벼를 대체할 고소득 작물로서 논콩 재배를 확대하기 위해 전국 최대 규모인 7억원을 군비로 편성해 지원했다”며 “내년에도 논콩 관련 예산 15억원을 편성해 농가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김윤복 기자

30일부터 2025년 회원 모집 목포시 어울림장난감도서관

목포시 어울림장난감도서관이 아동의 정서·신체 발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25년 회원을 모집한다.

27일 목포시에 따르면 회원 신청은 목포어울림장난감도서관 누리집(<https://www.mokpotoy.kr/>)에서 신청 가능하며 목포시 소재 어린이집의 장과 목포시에 주소록을 둔 취학 전 보호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등록된 회원은 일반 개인 연회비 2만원, 단체 연회비 3만원을 납부하고 1년 동안 다양한 장난감을 개인은 2점, 단체는 3점까지 최대 14일동안 대여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장난감도서관 누리집에서 사전예약 후 현장 방문을 통해 장난감을 수령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어울림장난감도서관(061-270-1254)으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정기찬 기자

수중 레저활동 특별 안전관리 목포해경, 순찰 강화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다음 달 22일까지 1개월간 수중 레저활동 특별 안전관리에 나섰다.

27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수중 레저 안전관리는 해양수산부 소관이나, 지속적인 수중 레저사고 발생에 따라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 주체를 해경으로 일원화하는 수중 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논의 중에 있다.

이에 따라 목포해경은 해수부와 협업하여 관내 수중 레저사업장(운송업) 3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수중 레저 주요 활동지(홍도·가거도)의 점검·순찰을 강화하는 등 수중 레저활동 특별 안전관리를 통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목포=정기찬 기자



지난 26일 전남드래곤즈와 천안시티FC 프로축구 경기가 열린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해남군 관계자들이 시축을 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광양축구전용구장서 해남군의 날 행사 성황

해남군이 지난 26일 전남드래곤즈와 천안시티FC의 프로축구 경기가 열린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전남드래곤즈와 함께하는 해남군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27일 해남군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2024 해남미남축제의 성공과 전남도 유일의 프로축구구단인 전남드래곤즈의 1부리그 승격을 기원하기 위해 축구 동호인들이 주축이 되어 해남군 네이밍데이를 마련했다.

해남군체육회와 해남군축구협회, 해남군민 등 400여명이 참여한 ‘해남군의 날’ 네이밍데이 행사는 명현관 해남군수와 이성욱 해남군의회 의장, 이길운 해남군체육회장, 정영필 해남군축구협회장의 시축으로 경기가 시작됐다.

이날 해남동초등학교 축구부 어린이들이 플레이어 에스콰드로 참여, 선수들의 손을 잡고 입장해 눈길을 끌었다.

해남군에서도 경기장 입구에 부스를

마련하고 11월 1~3일 개최되는 2024 해남 미남축제와 해남군에서 직영하는 온라인쇼핑몰 ‘해남미소’, 타지역에서 해남에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등을 적극 홍보했다.

명현관 군수는 “해남군은 생활체육과 스포츠마케팅 등을 통해 축구 종목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지역 축구발전과 생활체육 확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완도군, 어울림 복합문화센터 착공

상인 휴게 공간 마련 등

완도군은 중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어울림 복합 문화센터’를 착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일반 근린형)으로 선정됐으며, 어울림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개축에서 신축으로 사업 변경 최종 승인과 생활환경(BF) 예비 인증 등



완도 어울림 복합문화센터 조감도.

완도군 제공

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돼 이달 착공하게 됐다.

어울림 복합 문화센터는 부지 매입비 포함 총 77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430㎡, 지상 1층, 지상 3층에 상가와 식당, 주민·상인 휴게 공간 등 주민 커뮤니티 센터 기능을 갖춘 시설로 조성한다.

현장 내 공사 장비 출입구 확보를 위해 전주와 통신주를 이설 중이며, 토목공사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후 기초공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센터는 2025년 11월 준공될 예정이다.

완도=정태영 기자

목포시, 진드기 물림 주의 당부 “풀숲 피하기 등 예방수칙 준수”

목포시가 진드기 매개 감염병 감염 위험이 높은 시기(10월~11월)에 등산,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 물림 주의를 당부했다.

27일 목포시에 따르면 가을철에 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으로 숲과 풀밭에서의 활동이 많은 농작업이나 등산, 캠핑 등 야외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감염 위험이 높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약 21%의 높은 치명률을 유지하고 있어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진드기에 물린 후 2주 이내 38~40도의 고열이 3~10일간 지속되고 피로감,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농작업 등 야외활동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부 노출 최소화 △기피제 뿌리기 △풀숲 피하기 △야외활동 후 전신 샤워하기 △야외복 분리 세탁하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진드기에게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며 “진드기에 물렸거나 2주 이내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숲영화제 폐막식·전시회 영암군 숲협동조합

영암군 숲협동조합이 오는 11월 4일부터 10일까지 영암읍 대동공장 문화재 생사업지 2번 창고에서 ‘제1회 숲영화제 폐막식과 전시회’를 개최한다.

행안부 청년마을 공모사업에 선정돼 생태를 주제로 활동하고 있는 숲협동조합은 지난 12일 월출산 도갑사에서 사찰과 영화가 어울리는 숲영화제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폐막식과 전시회는 그 연장선에서 열리는 행사로 영화제와 생태 작품 전시로 구성돼 있다.

먼저 7~9일 열리는 숲영화제 폐막식에서는 폐허로 남은 공간이 주제인 영화 3편이 상영된다. 7일 말하는 건축가, 8일 광천동 김환경, 9일 땅에 쓰는 시이다.

이 영화들은 공간의 과거를 회상하는 것을 넘어 그 공간을 매개로 과거와 현재가 만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4~10일에는 청년작가 생태 작품 전시가 함께 열린다. 전시 참가작가들은 창의적 작품으로 관람객들에게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정서진 숲협동조합 대표는 “과거의 산업 기능을 잃은 공간이 예술과 문화로 재탄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구)대동공장이 향후 새로운 가능성의 터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를 행사에서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암=한교진 기자

